



REVIEW REPORT

(2022.09.)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주 제 : 대전사용법 大田使用法, How to Live in Daejeon
- 개별적 일상의 특별한 발견을 통한 대전 정체성 탐구

철도교통, 과학기술, No잼, 성★당. 일반적으로 대전과 연관하여 언급되는 단어들이다. 경부선 개설 시 도시의 기원과 연관된 철도교통의 중심지라는 상징. 30년 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갈망하며 치른 세계박람회의 영향으로 부여된 과학도시라는 명칭. 타 지방도시와 큰 차이 없음에도 근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른 노잼도시라는 오명. 이 외에도 몇몇 개념들이 대전을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도시가 특정한 이미지(像)를 지닌다는 의미는 그 도시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겪는 개별적인 경험에 도시가 주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으며 이를 대표할 만한 특정한 개념으로 추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대전이 갖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전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위에 언급된 상징들은 그러한 인식을 대변하기에 충분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는가. "대전 사용법"은 이러한 의문에서 기인하며 기존에 통용되는 대전의 상징 개념들의 의도적 부정에서 시작한다.

외부에서 차용된 상징이 아닌 대전이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영성한 밀착에 의해 단순하게 결론지어지는 일반화도 아니고, 건축학도로서 어느새 내부에 자리하게 된 편협한 전공공예의 매몰이 되어서도 안된다. 일상적이지만 깊이 있는 관찰에서 도출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단단히 삶을 구축하는 방식의 서술이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지나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이번 워크샵 기간 동안에 발견한 장소일 수도 있다. 새벽녘 이웃집 뒷골목 화단일 수도 있고, 1km에 달하는 주말 저녁 천변가일 수도 있다. 대전이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전 도심에 위치한 근대건축문화유산일수도 있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트램이 지나가는 가로의 경관일 수도 있다. 이번 디자인캠프를 통해 우리 주변의 도시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장소들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덧씌워지는 순간 풍부해지는 도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사용법에 대해 제안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장 소 : 대전시청 / 구 충남도청사

일 정 : 7월 1일(금) 입소식 / 스튜디오 배정

7월 15(금) 중간크리틱 / 주제 강연

7월 21-22(목-금) 최종 프리젠테이션 / 수료식

스튜디오 사전 작업 : 7월 2일 ~ 14일)

※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소식 및 수료식을 제외한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스튜디오별로 진행됩니다.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e
사건법인 대전도시건축연구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022 건축디자인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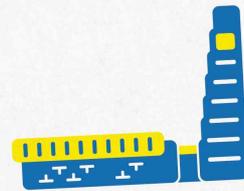
25th Architectural Design Camp

대전사용법

How to live in DAEJEON

7.1 FRI - 22 FRI

www.ria.or.kr



주최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후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 (사)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

25th Architectural Design Camp

2022 건축디자인캠프

7.1 FRI - 22 FRI

대전사용법

How to live in DAEJEON

주최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후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 (사)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

www.ria.or.kr




※시안대로 인쇄됩니다! 시안과 디테일컷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front



back



디자인캠프 단체 티셔츠

[운 영 일 지]

■ 장소 : 한밭대학교 건설공학과 (코로나 상황에 의하여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행)

■ 일정

▷ 06.29. 참가신청 마감

▷ 07.01. 캠프 개소식, 스튜디오 배정

- 3인 1 스튜디오로 배정되며 스튜디오 내 동일학교 구성은 가급적 배제
- 랜덤 배정이나 학년을 고려한 구성
- 1개 스튜디오 당 1명의 튜터로 구성
- 튜터는 각 학교 전임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

▷ 07.02.~07.14. 스튜디오별 사전 미팅 및 작업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대면 활동이 제한적이므로 스튜디오별로 팀작업(학생 3인+튜터 1인)
- 주제 및 작업방향에 대한 전략, 사전검토,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학습 등
- 학생과 튜터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일정 및 장소 등)
- 온라인을 통한 활동 및 주 1~2회 오프라인 크리틱 권장

▷ 07.15. 중간크리틱 / 주제강연

- 전영훈 교수 : (대전시 총괄건축가)

▷ 07.21.~22 최종 크리틱 및 시상식

- 각 스튜디오별 진행 사항 및 제안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전체 크리틱(ppt 발표)
- 크리틱 및 시상

■ 최종 결과물

- 팀별 450x450 12면 전시 이미지
- 최종크리틱 발표를 위한 ppt
- 건축문화제 전시를 위한 모형제작(필요한 팀에 한하여)

■ 시상 내역

[내 역]

- (대 상 1팀) iPad pro + 상장
- (우수상 4팀) Apple Watch7 + 상장
- (장려상 7팀) JBL 블루투스스피커 + 상장

[수상 스튜디오]

STUDIO 11
STUDIO 01, 02, 06, 07
STUDIO 03, 04, 05, 08, 09, 10, 12

[참 가 자]

25^H 대전건축디자인캠프 교장 : 김 영 주 교수(배재대학교)

스튜디오	튜터	이름	학교	스튜디오	튜터	이름	학교
1	박준영 건축사 (도하)	김수현	건양대학교	7	이택구 교수 (배재대학교)	한지혜	건양대학교
		한태일	목원대학교			윤승훈	배재대학교
		김현정	한남대학교			임주은	목원대학교
2	김호영 교수 (한밭대학교)	김홍주	건양대학교	8	차재석 건축사 (콤마)	김재건	건양대학교
		유지철	목원대학교			임소정	배재대학교
		이주현	한남대학교			송지은	한남대학교
3	이현진 교수 (건양대학교)	이지선	건양대학교	9	홍성룡 건축사 (이노건축)	임준수	목원대학교
		전은수	배재대학교			안지원	배재대학교
		박주희	목원대학교			김수아	한밭대학교
4	신상엽 교수 (목원대학교)	오시은	한밭대학교	10	황성욱 건축사 (장인)	이예현	대전대학교
		백혜원	배재대학교			최은혜	배재대학교
		여고은	충남대학교			한영찬	목원대학교
5	백한열 교수 (한남대학교)	임수영	건양대학교	11	장용진 건축사 (제제)	노현서	건양대학교
		안재연	배재대학교			지동준	한남대학교
		조민혁	충남대학교			서윤지	한밭대학교
6	성우제 교수 (충남대학교)	정지은	한남대학교	12	정미라, 최상아 건축사 (스몰웍스)	김지용	한밭대학교
		김용진	배재대학교			양미주	배재대학교
		이수연	충남대학교			유희수	건양대학교

[지원]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이사장 : 박태식 (대전건축사협회 회장)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원장 : 이승재 (목원대학교)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사무총장 : 김 연 돈

간 사 : 전 수 빈 (한밭대학교)

ALBUM

07.01 캠프 개소식



07.15 중간크리틱 / 주제강연



07.21-22 최종크리틱 및 시상식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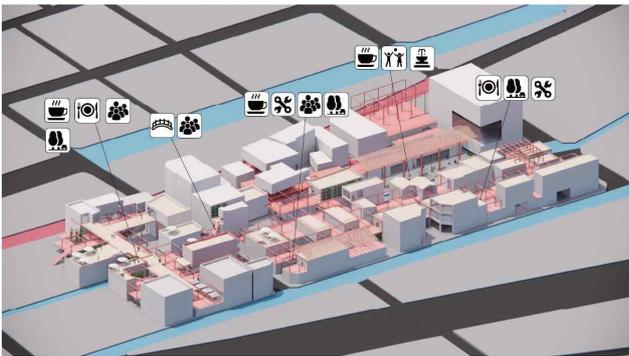
Project Title How to live in Daejeon?

거리 분석 및 프로그램 선정

- 1) 거리테마를 나타낸 조형물, 체험공간
- 2) 오픈 스페이스 및 휴게공간
- 3)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 공간
- 4) 플리마켓 등 이벤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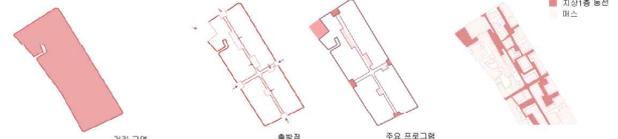
- 1) 자연, 휴식의 거리
- 2) 문화, 카페거리
- 3) 공유오피스, 체험공방 거리



케빈린치의 5가지 도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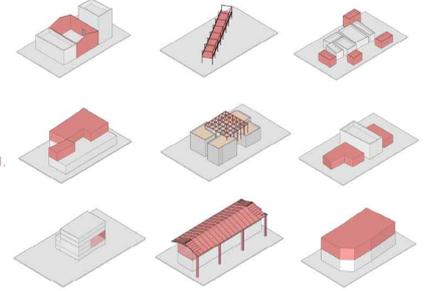
기존 거리에서 경계를 확실시 만들고, 경계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골목과 거리를 인지하고, 경험하기 쉽도록 기존의 거리를 재해석한 새로운 문화 거리 조성했다.

Edge : 구역 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라인으로, 연속적인 선 상의 골목이나 두 길 사이의 경계. NODE : 결정점 관찰자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며, 그 곳을 향해서 가거나 출발할 수 있는 주요 지점. Path : 통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줄기 장소와 장소를 연결시켜주는 내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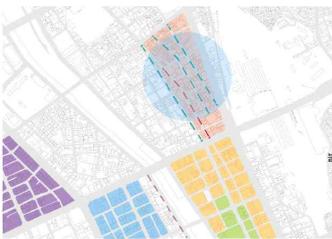


타입 구성

건축물을 구성하는 타입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건축물을 두고 그에 공간을 추가하고, 덜어내는 것으로 하며, 여러가지 타입을 통해 새롭게 건축물 구성했다.



잊혀져 가고 있는 대전의 특화거리



1990년대 경기부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지정된 특화거리인데 대전에서만 24곳에 이르렀지만 대전의 중심 상권이 둔산동 일대로 새롭게 이동하면서 특화거리는 원도심과 함께 쇠퇴되었다.

현재 대전의 특화거리는 동구6곳, 중구7곳, 대덕구4곳, 유성구2곳으로 다양하게 특화거리가 설립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상인들만의 교류가 끊긴 거리도 있고 특화거리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길게가 모퉁이거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 예매는 경우가 대다수다

- 민채특화거리
- 한약특화거리
- 중앙재래시장거리
- 한복특화거리
- 은행동 풀음 패션거리
- 선화동점심특화거리

대전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콘텐츠

"골목" - 오랜시간을 거쳐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존재. 이웃과 삶을 나눴던 네트워크의 장소.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골목문화가 형성될 때, 공동체는 회복되고 지역의 정체성은 골목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공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사람자기는 골목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활성화시켜 잊혀져가던 골목의 지역성, 역사성으로 되살려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랜드마크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동구리는 지역의 정체성, 나아가 대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Program Image



Program Image

PROGRAM 04 - 연결브릿지



PROGRAM 05 - 플리마켓 & 이벤트 광장



PROGRAM 06 - 오픈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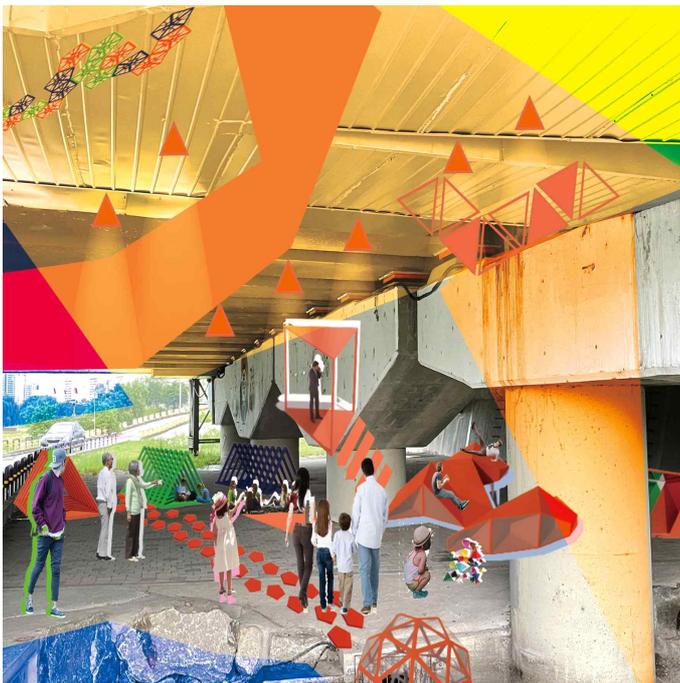


STUDIO 02

TUTOR	김 호 영 교수 (한밭대학교)
STUDENT	김흥주
	유지철
	이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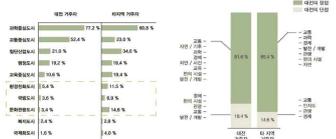
연결을 MoA 하나로





Project Title 3자, 대전

1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대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락, 교통 도시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환경, 문화, 복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2 대전에서 주목할만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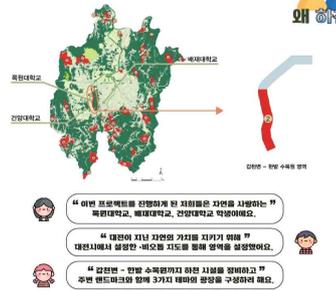


대전의 **하천**은 지구가 선물해준 자연적 가치가 풍부한 장소예요. 선라기브리아 시대부터 쥐라기 시대까지 전해져온 풍부한 **무기질 토양**부터 **유엔환경계획(UNEP)**을 기준으로 선정된 **생태 보호종** 친구들까지 있답니다. 대전 **비오름 지도**와 함께 하천을 따라 자연과 대전의 도시를 만나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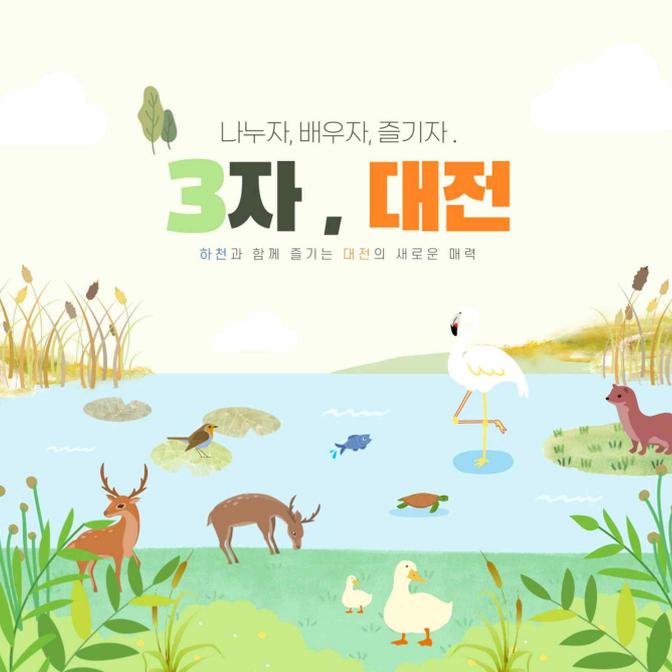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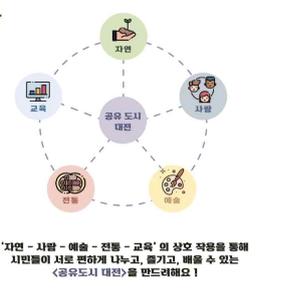
대전의 랜드마크 역시 하천을 따라 걸다보면 모두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예술의 랜드마크**인 대전시립미술관과 예술의 전당도 만날 수 있고 대전의 **전통과 과학**을 보존한 국립중앙과학관, 가족 캠핑장과, 생태 보호종 친구들이, 이릉이, 하림이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비오름 지도 : 도시의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징과 가치를 담은 영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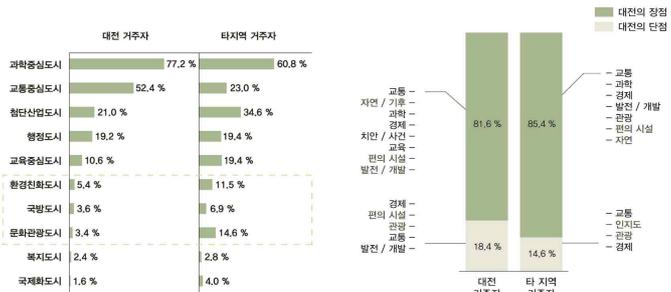
3 어느 부분이 새롭게 바뀌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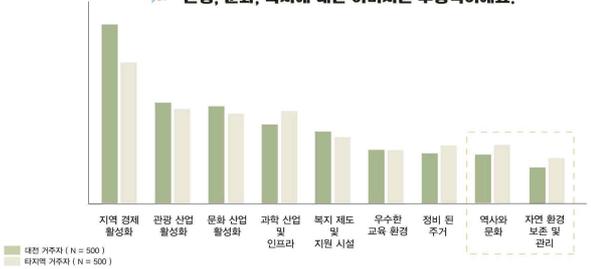
4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5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대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락, 교통 도시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환경, 문화, 복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자연과 과학이 하나로... 천문학의 발달!”
 선비들은 천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했어요.
 산책을 하다 지칠 때 해먹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요.



“선비들의 독특한 피서법, 탁족!”
 선비들은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을 즐겼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며 옛 선비들의 정신을 느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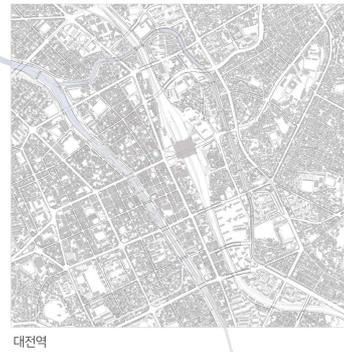
TUTOR	신 상 업 교수(목원대학교)
STUDENT	오시은
	백혜원
	여고은

Project Title Let's face it

해결방안 - 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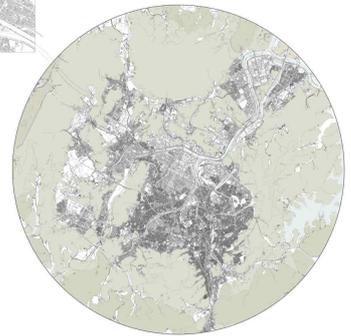


대전의 밀도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은 대전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긍정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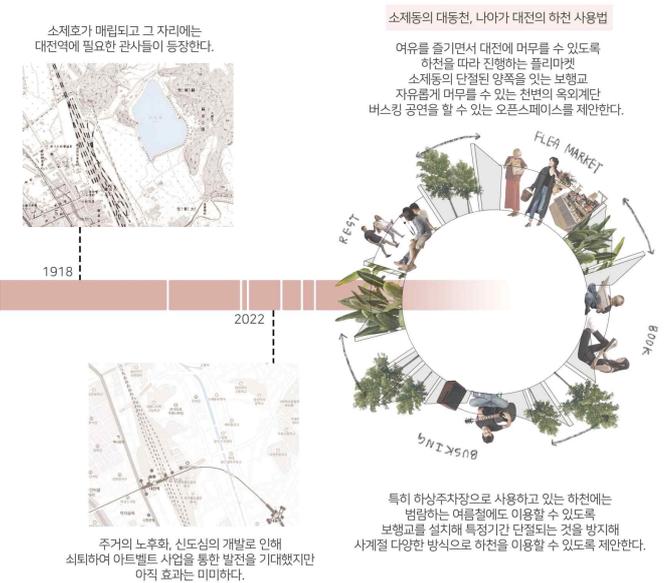
반면 대전역 주변은 대전의 구도심으로, 비교적 밀도가 높으며 주변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있지 않다.



인식의 배경이 되는 공간 요소



미래의 모습



해결방안 - 보행교

하천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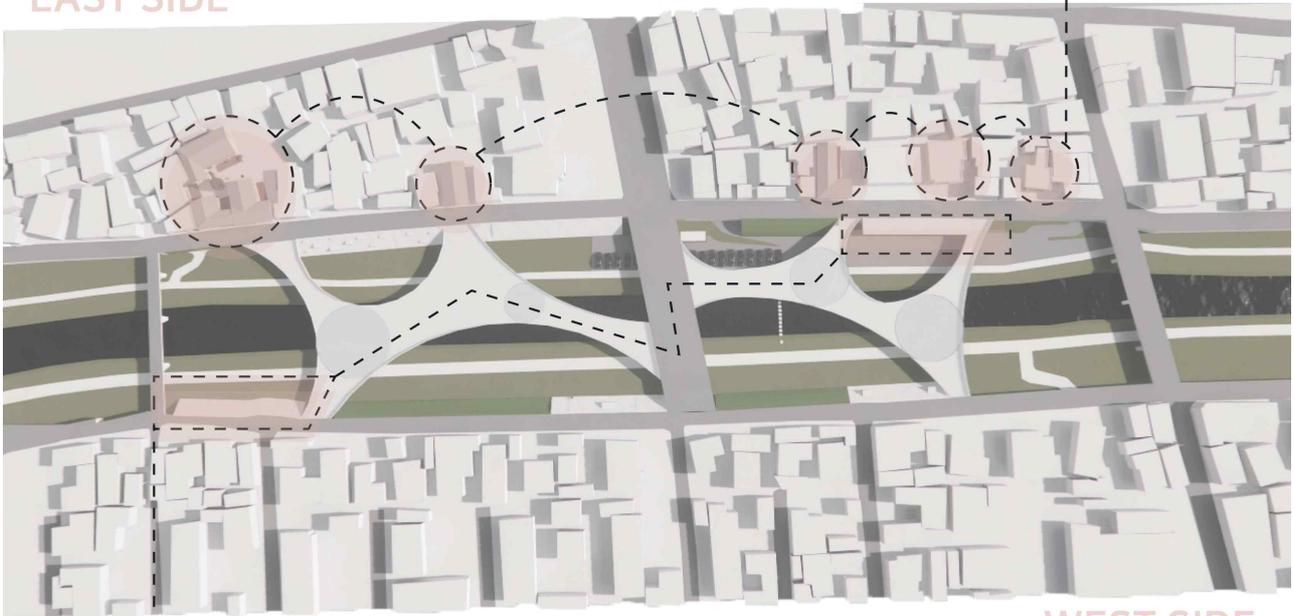
: 서쪽과 달리 음식점, 카페의 수가 거의 없어 대지 사용도가 두드러지게 낮다.



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 효과

EAST SIDE

스테이



WEST SIDE

플리마켓

하천 서쪽

: 대전역에서 가까우며 관사, 음식점과 카페가 많아 대지 사용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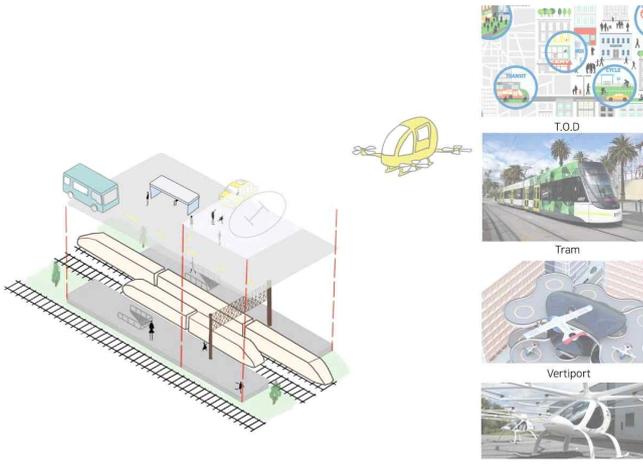
보행교를 두어 자유롭게 동쪽과 서쪽을 드나들 수 있게 다양한 동선을 추가하며 보행교의 밑부분은 그늘막으로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하천으로의 유입을 유도한다.

TUTOR	백 한 열 교수(한남대학교)
STUDENT	임수영
	안재연
	조민혁

Project Title ALL IN ONE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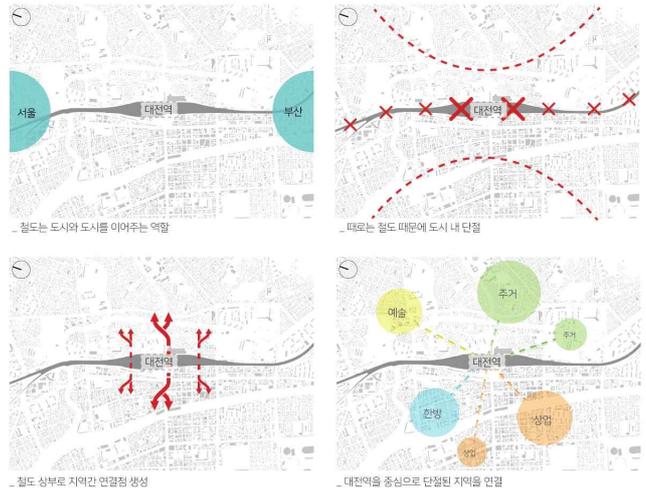


MOBILITY HUB

철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지만 그 자체로 도시를 분절시키기도 한다. 그로 인해 분절된 도시를 다시 대전역으로부터 연결시켜주며 복합환승의 기능을 더해 미래의 교통수단인 드론 택시 등을 사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교통을 연결시킨다. TOD의 의미를 담아 교통으로부터 발생하여 도시가 생성되는 것처럼 지하부터 상공, 수직과 수평을 아우르는 MOBILITY HUB를 제안한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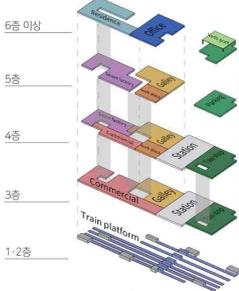
"분절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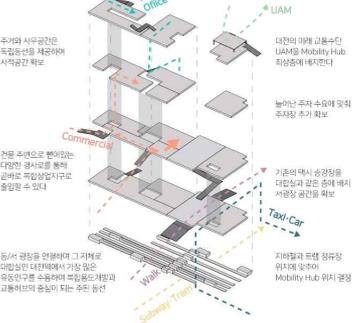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역할
 대로는 철도 때문에 도시 내 단절
 철도 상부로 지역간 연결점 생성
 대전역을 중심으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

Plan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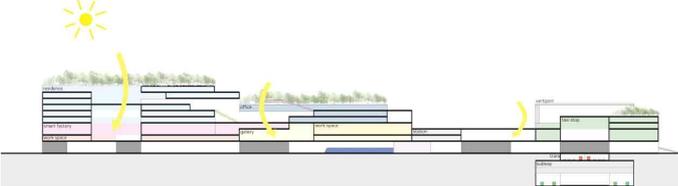
Program



Access



Section



프로그램에 따라 층고에 차이를 두어 공간감을 다르게 한다. 이처럼 다른 매스들이 적층이 생기고 그 사이마다 보이드를 두어 다양한 위계를 느끼게 한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만드는 부분에 보이드를 풀어 환기와 채광을 더한다. 사람들이 오고 갈때 개방감과 새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보이드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하여 곳곳마다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부에 녹지를 더하여 사람들에게 자연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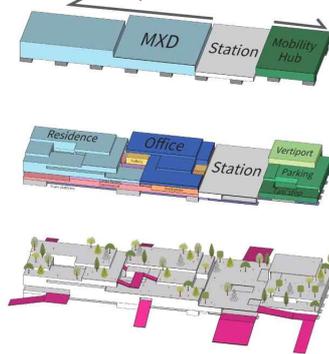
Existing

기차와 일반교통,기차교통과 버스,택시 간의 연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Planning

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택시, 기차, LIAM 연결 위한 형태를 아우르는 복합용도개발을 반영한다

Mass study



1. 3개의 큰 구역

중심부의 기차역 - 기존 매스 유지
 남쪽의 교통 허브 - 주차공간 위로 수직 층복의 복합용도개발 단지 - 철도 플랫폼에 면한 수평 층복 철도를 따라 길고 가는 선형 매스

2. 구역별 내부 프로그램

남쪽의 교통 허브
 지하철/트램 - 기차역시 - Verti port를 이어주는 수직매스
 북쪽의 복합용도개발 단지
 전면부를 아우르는 수평적 상업공간과 스마트 혁토리
 기차역과 맞닿은 미술관과 작업공간 매스
 상공부의 거리를 위한 상공부의 레지던스와 오피스 배치

3. 대지와 건물간의 연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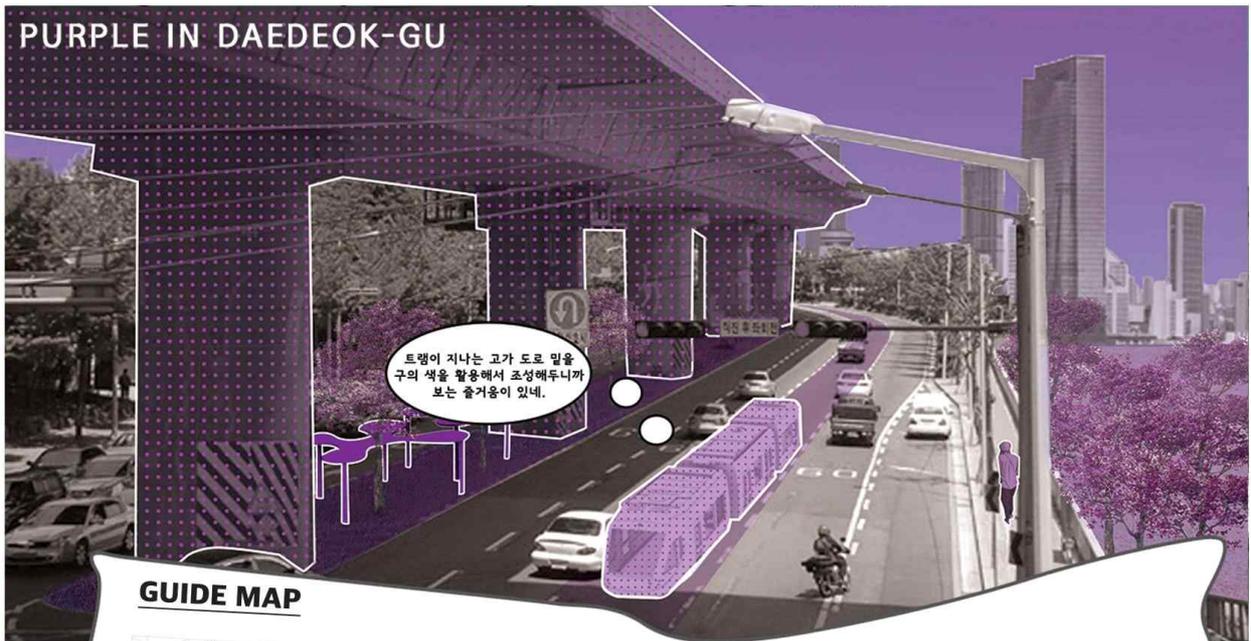
각 공간에서 그라운드 레벨까지 이어지는 서로 다른 경사로
 각 프로그램 사이의 단차도 내부 램프를 통해 연결
 거대 매스 내부의 동풍과 채광을 위한 보이드 공간 마련

New station



대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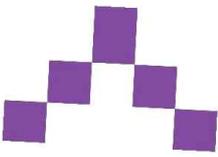
대전 사용법은 기존에 통용되는 대전의 상징 개념들의 의도적 부정에서 시작한다. 외부에서 차용된 상징이 아닌 대전이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온전한 가치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상징 개념들 뒤에 숨겨진 개념들이라고 생각했다. 철도교통 중심도시와 노점도시 타이틀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찾으려했다. 대전시민 누구나 알고있는곳, 대전의 새로운 모습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곳, 풍부해지는 도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대전역을 꼽았고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GUIDE MAP



대덕구



대덕구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북동부에 있는 구이다. 대덕이라는 지명은 대전의 대와 대전의 옛 지명인 회덕의 덕을 합친 것이다. 이는 1935년 대전읍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군을 대덕군으로 개편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오정역

충청권 광역철도 및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예정 철도역. 경부선과 옛 오정선의 신호장. 한남대학교 후문 주변에 있었음. 1978년 1월 폐역되고 대전조차장으로 대체

한밭대로

대전c 부터 한밭대학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고 왕복 10차선 도로, 고가도로도 형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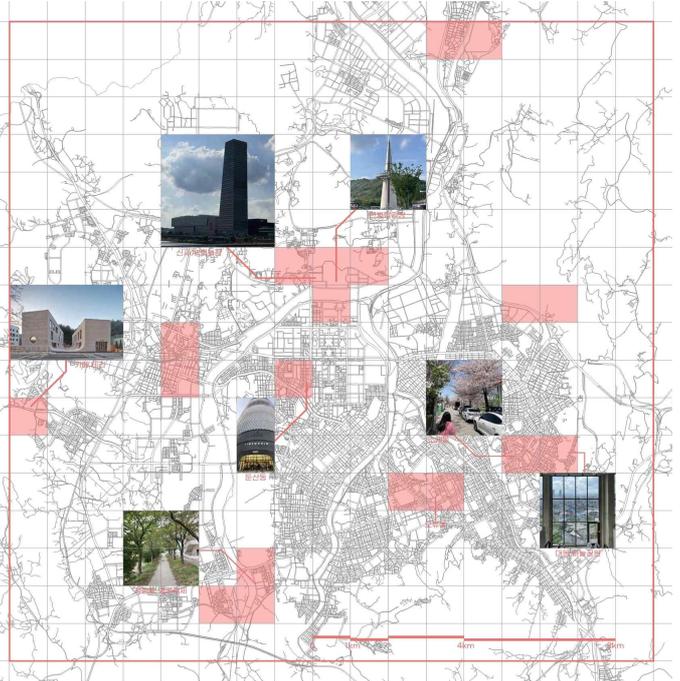
한남대학교

버스 한 정류장 거리에 한남대학교 북문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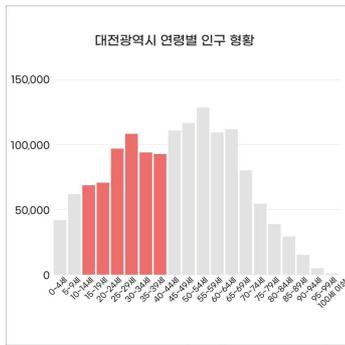


TUTOR	이택구 교수(배재대학교)
STUDENT	한지혜
	윤승훈
	임주은

Instagram In Daejeon



건양대 한지혜
목원대 임주은
배재대 윤승훈
투터 이택구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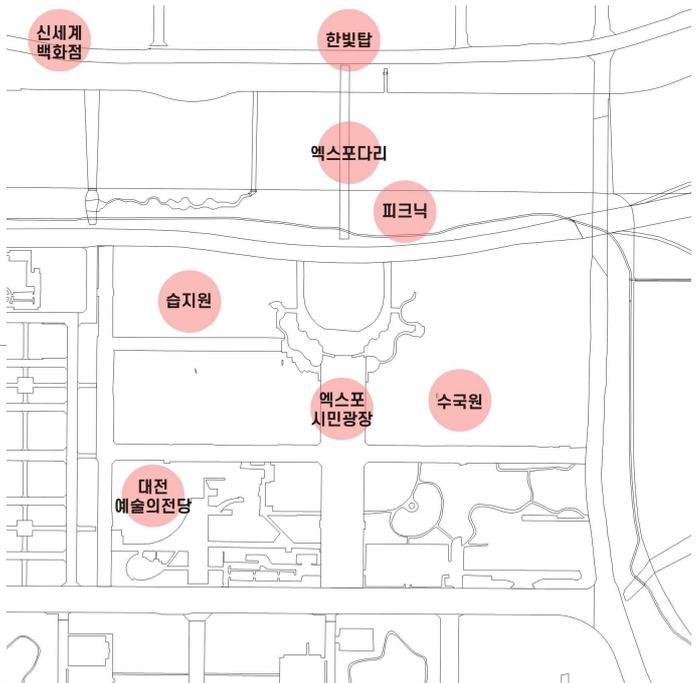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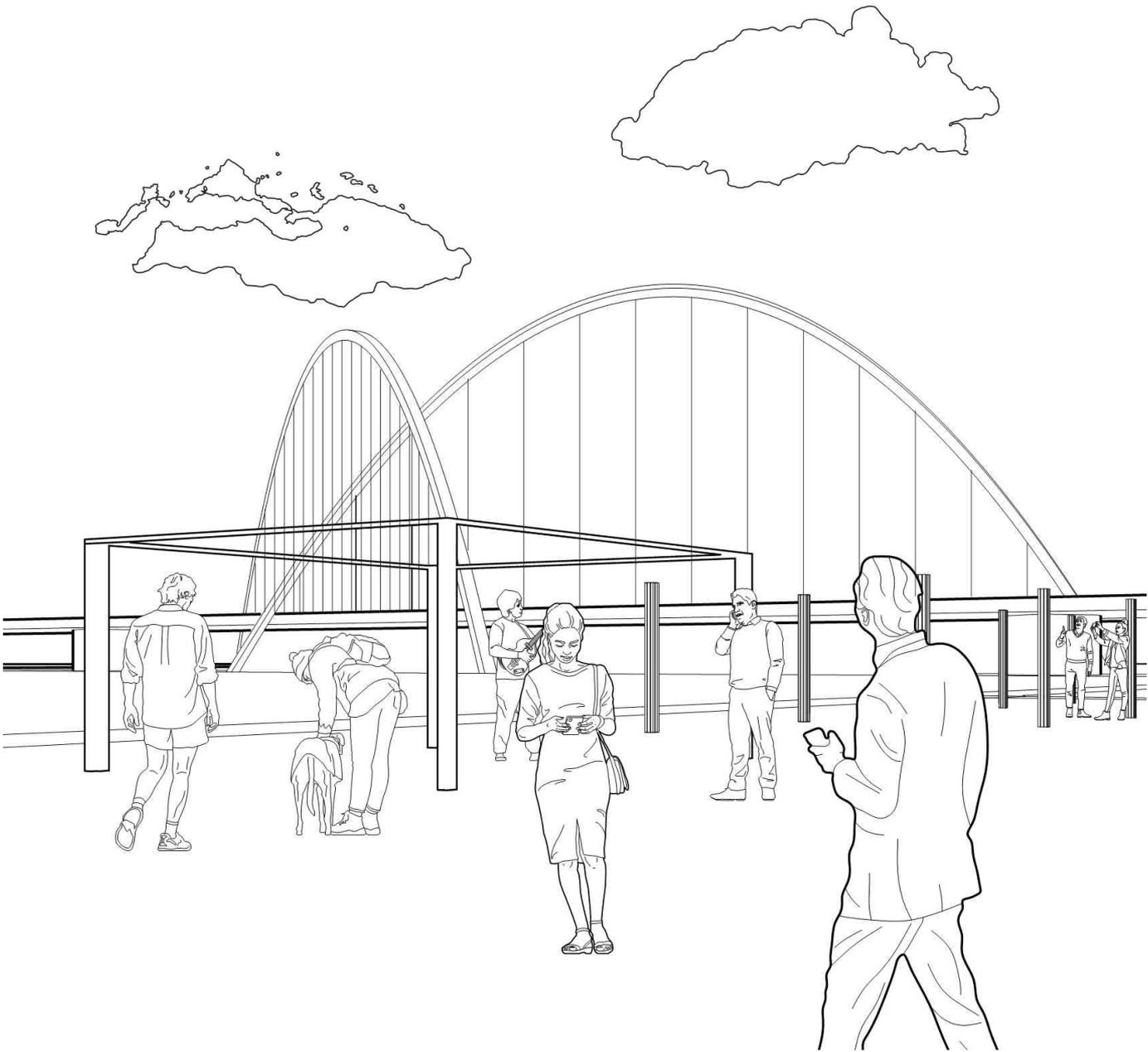
전체 인구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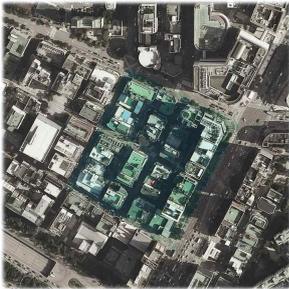
21개 대학교



대학교명	주소	구분
건양대학교(간성캠퍼스)	대전광역시 서구 관동동158	사립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로 63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둔촌동41	사립
복음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둔방동158	사립
유성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155-40	사립
충주대학교(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171	사립
홍익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77	사립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로 99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190	사립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로 291	사립
동원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동 319	사립
한서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로125	사립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동동 68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원동 21	사립
우송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동 171	사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100	사립
한국과학기술대학교(대전캠퍼스)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동 302-21	사립
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전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동동 217	사립
연세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로 132동 40	사립
연세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동동158	사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전남부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로 112	사립
합계	21개 대학교	







둔산동 거리 현황



정체성 형성?



우리가 생각한 지역의 정체성 생성 과정은 위와 같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기록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보여주는 것을 통한 지역 내, 외부의 사람들의 인식.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체성이 된다고 생각한다.

노(NO)잼 도시



유(有)잼 도시

현재 우리의 대전은 타 지방 도시와 큰 차이 없어도 불구하고, 저속과 같은 과정으로 인해, 노잼 도시라는 모멸을 짓고 있다. 우리는 대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유(有)잼 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Problem : 간판의 과부하로 인한 특색 없는 변화가

이 지역은 둔산동의 번창기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대다수의 도심 속 변화가들이 그렇듯 둔산동 거리 또한 간판의 과부하로 인해 도시경관이 해체되고 있다. 또, 다른 도시들과 다음없는 변화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간판 없이 간판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색 있는 변화기의 모습, 즉 새로운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프로젝트

대지 설정

정체성은 SNS인식을 통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SNS를 사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 번화가를 선택하였다.

프로젝트 : 송송

종류 : 즐기고 휴식하다

번화기에 슬러브를 돌려 허파에서는 즐기고, 상부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유동과 함께 하라는 의미로 프로젝트의 이름은 '송송'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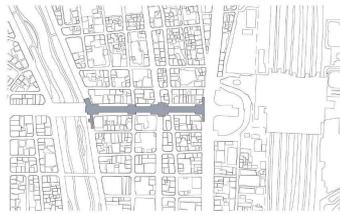


STUDIO 09

TUTOR 홍성룡 튜터
STUDENT 임준수
안지원
김수아



SITE



대지위치 : 대전 동구 중앙로 지하 200
(현 대전 역전지하상가)
연장 : 311.2m (폭 : 17m)
면적 : 6,56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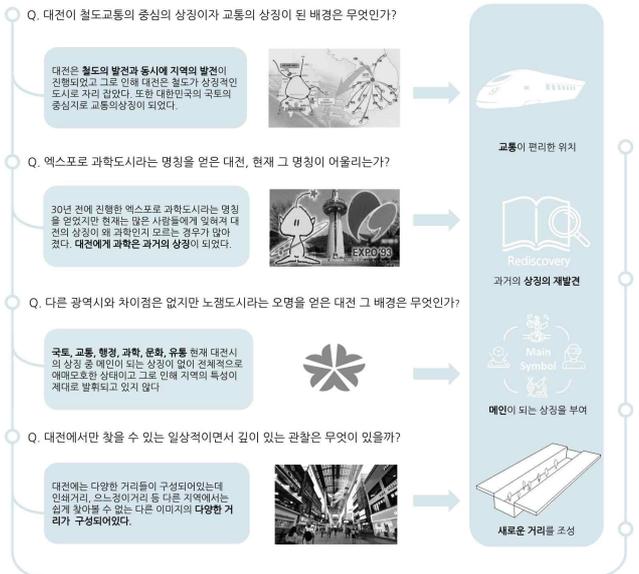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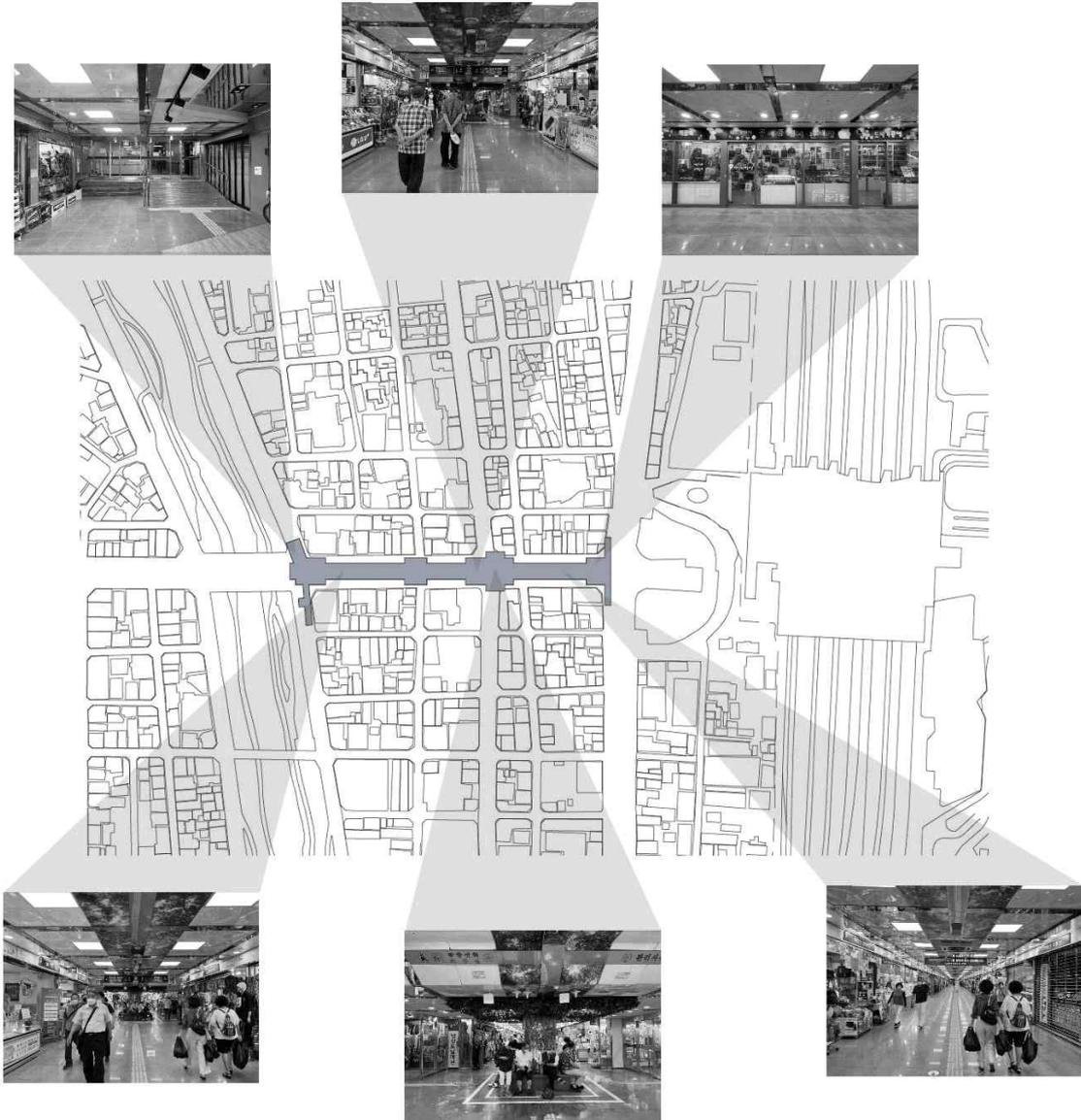
COMPARISON



PROBLEM



SITE PROBLEMS



원도심인 역전지하상가는 현재 어르신들의 쉼터 또는 비와 눈을 피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패션과 문화의 메카로 불리는 신지하상가에 반해 낙후되고 사용 연령층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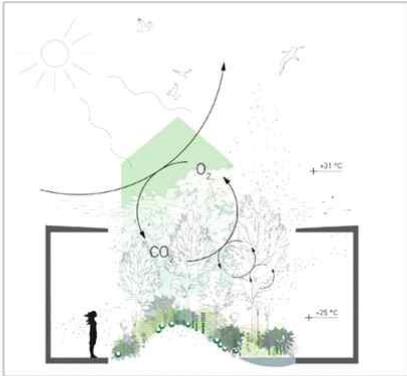
#01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

동구, 중구와 다르게 서구 유성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



#02
자연요소

지하의 변화



새로운 지하에 자연요소 투입



#02
최종

중구,동구의 변화



우리는 네 가지의 요소들을 토대로
유동인구를 수용하고 지역적 발전과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Project Title 대전사용법

O3 원도심

- # 은행동
- # 목척시장
- # 근대 건축물



WHY 왜 원도심인가?

대전 원도심은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원도심 상권의 몰락과 함께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모색하고 시행하였지만, 표면상으로만 드러나는 물리적 변화에만 치중하여 대전 고유의 성격을 형성하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다.

대전의 태생이자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100여년의 역사가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원도심의 역사성과 가치에 주목하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O2 중촌동

- # 폐철도
- # 중촌시민공원
- # 대전천
- # 고가도로



WHY 왜 중촌동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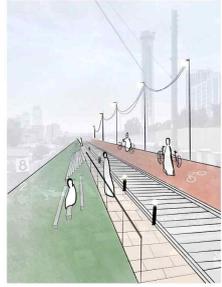
중촌동은 주변의 탄방동, 삼성동, 오정동과 달리 밀도가 낮고 판상형 아파트가 밀려들 이루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전의 구도심의 은행-선화동과 신도심의 단산동 사이에 위치하여 그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고 있는 중촌동은 어디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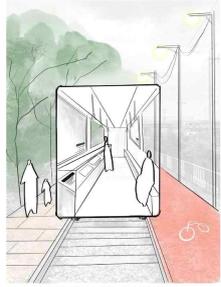
중촌 시민공원 폐철도 대전천 유등천 고가도로



01 주요 동차역 / 신도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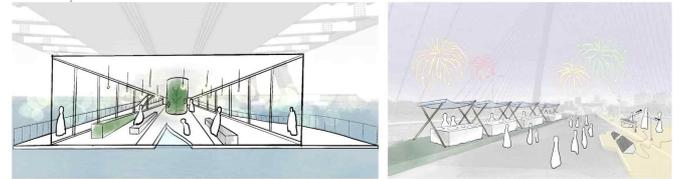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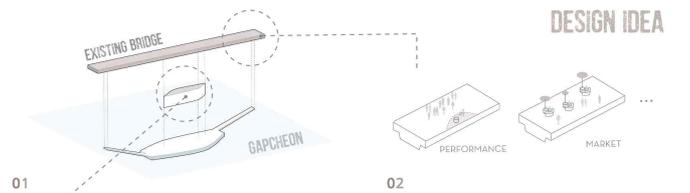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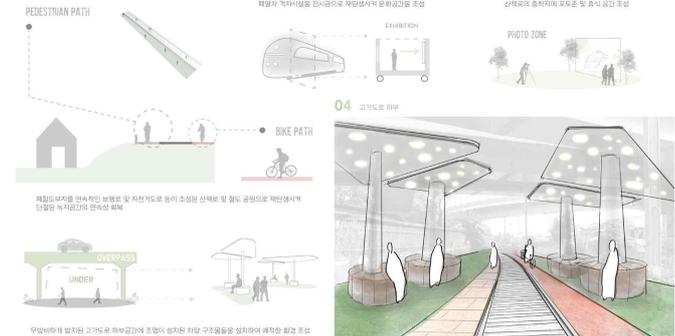
02 역상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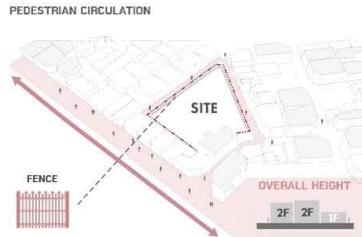
03 신도시 진입



DESIGN IDEA



DESIGN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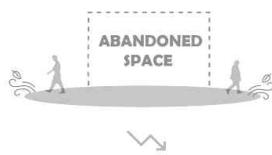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선형 공간
답장의 영역 분할로 인해 제한된 동선 & 사이트의 경계에 고밀도로 자리잡은 낮은 층고의 건물들

01



과거의 근대 건축물의 입면을 유지하여 대지에 새로 지어질 건축물과의 연속된 풍경,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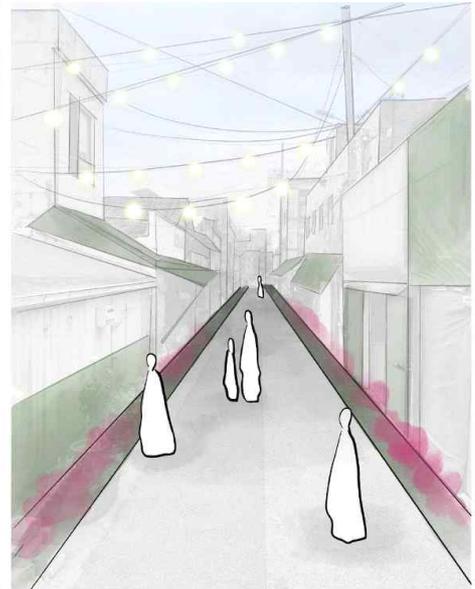
원도심 내 저이용 공간을 사람들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담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02



주요축에 페이빙 및 거리만의 디자인을 통해 방향성 및 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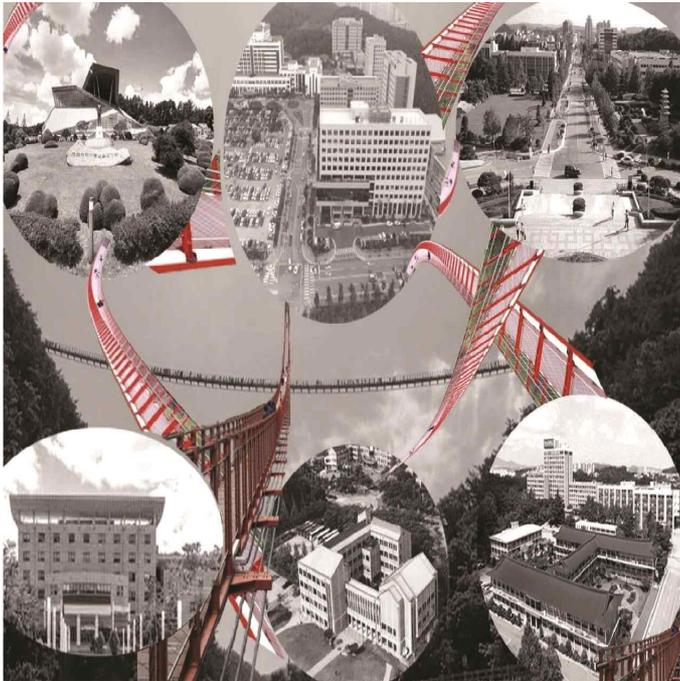


03

곳곳에 위치한 낙후된 골목길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가로 형성

TUTOR	이 현 진 교수(건양대학교)
STUDENT	최 용 정 (목원대학교)
	이 지 우 (한밭대학교)
	정 건 우 (한남대학교)

PROJECT TITLE : 대전 : 유잼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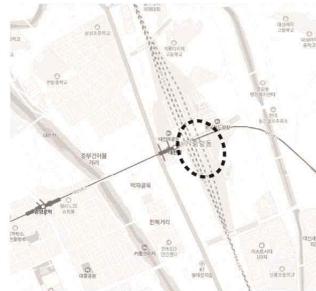


신세계 백화점 전망대를 이용한 놀이기구 '가로 관람차'

놀이동산에서 대부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는 놀이기구가 많고 사람들은 이런 기구를 즐겨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에 놀이기구를 추가해보았습니다.

롤러 코스터처럼 빠른 즐거움보다 관람차와 같은 여유 있는 즐거움이 더 특별한 장면을 연출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대전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 거대하고 독특한 오브제를 만들어 대전의 멋진 이미지에서 새롭게 각인시켜 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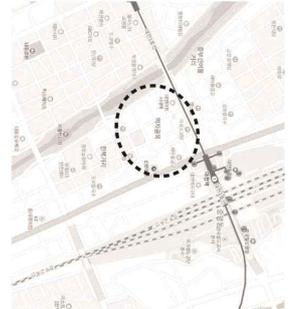
신세계 호텔의 외부와 자연을 잇는 '계단길'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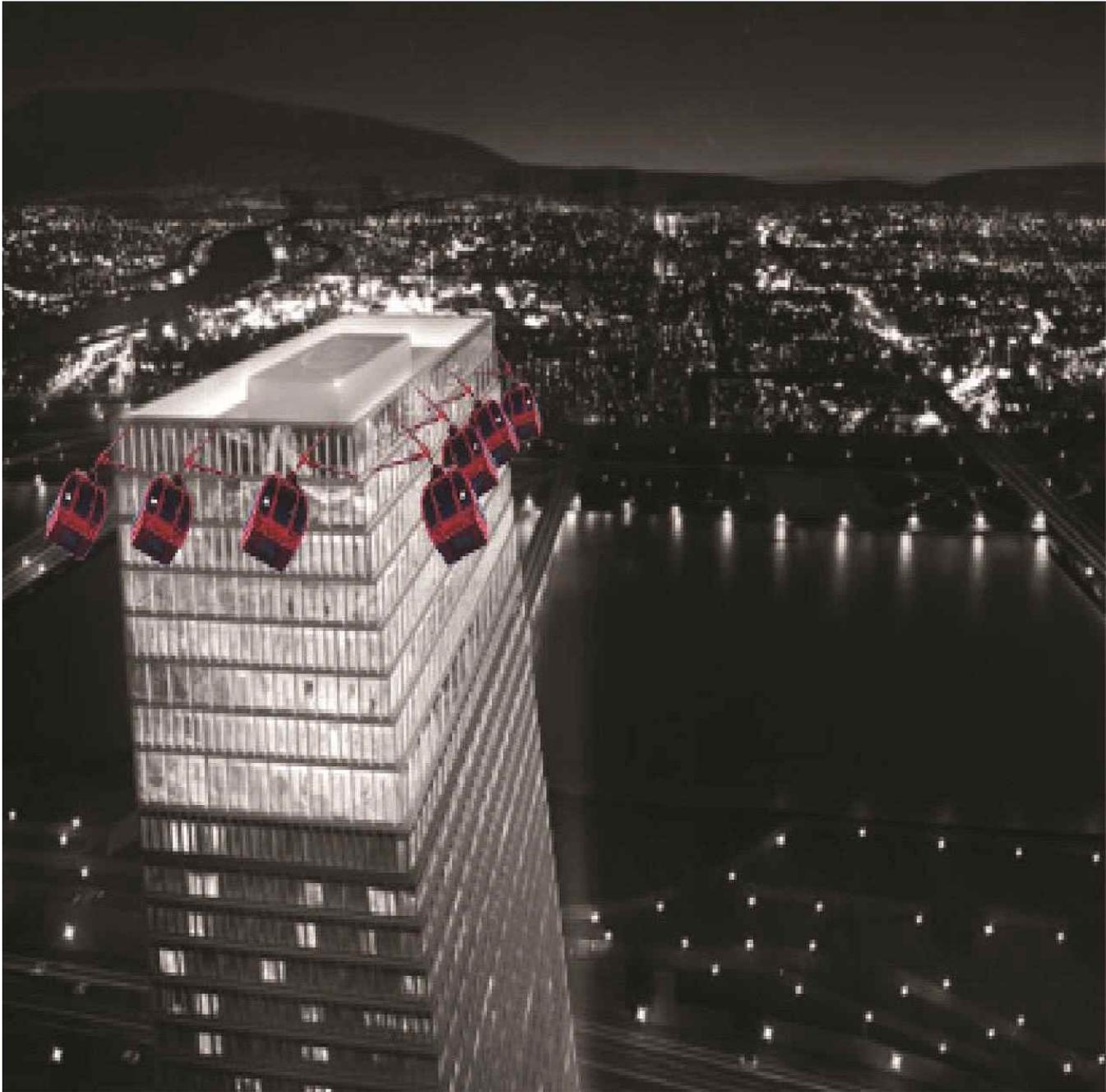
대전만의 여유로운 강가를 만들고 싶어 특별한 것을 추가해보았습니다.

한밭 수목원과 신세계 호텔에 있는 전망대를 계단을 사용하여 이어 계단 사이에는 쉬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둘러 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역 근처에는 성안당 옆고는 자주 안가는 곳이다. 그러니 이 주변 녹성들을 연결시켜 녹성길을 만들고 세토론 시진으로 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